

# 내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전 질환 확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진료비가 나왔을 때 건강보험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이 내년부터 전 질환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지원기준을 검증하고 이후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 일원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초과했을 때, 의료비의 50%를 지원하게 했다. 건강보험 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외래환자중 일부 지원 최대 연 2000만원까지...심사 거쳐 추가지원 가능

입지는 병원비 200만원 초과 시, 의료급여나 차상위 계층은 100만원 초과 시 지원대상이다.

다만 올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대상이 협소해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메디-푸어'(Medi-Poor)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 중인 복지부는 이 같은 지원방식을 개선해 내년부터 ▲소득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80% 이하→100% 이하) ▲지원액 한도 상향(연생 2000만원→연간 2000만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으로, 내년 기준 1인가구 167만2000만원(4인가구 기준 45만9000원) 이하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된 소득이 이 기준보다 아래면 급여·비급여를 가리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된다.

또 내년부터는 입원환자뿐 아니라 외래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고

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만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기준(연 2000만원)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기준을 검증해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 태풍 빈틈으로 베트남 푸꾸옥섬 관광객 발뚱어

태풍 빈틈으로 항공편 및 여객선 운항이 전면 취소되면서 외국 관광객 2200명 정도를 포함해 40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베트남 남부 끼엔장성 푸꾸옥섬에 발이 묶였다고 베트남 중앙TV(VTV)가 26일 보도했다. 푸꾸옥섬은 베트남 최대 섬으로 유명 관광지이다.

빈틈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 하지만 베트남 당국은 필리핀에 최악의 피해를 입힌 빈틈의 베트남 상륙에 따라 10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또 베트남 남부의 모든 학교에는 26일 휴교령이 내려졌다.

빈틈은 이미 끼엔장과 카마우, 바리우 등 남부 성들에 많은 비를 쏟아붓고 있다.

베트남 남부는 태풍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흔치 않지만 일단 태풍이 닥치면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1997년 태풍 린다가 베트남 남부를 덮쳤을 때에는 약 3000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지난달 베트남 중부를 강타한 태풍 담레이는 베트남을 덮친 태풍으로는 1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한 것으로 1237명의 사망 또는 실종자를 낳았으며 수백명을 부상시키고 약 10억 달러(1조761억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 사우디 여성들, 내달 12일 첫 축구경기 관람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들의 관람이 허용된 축구 경기가 다음달 12일 개최된다.

26일(현지시간) 아랍뉴스에 따르면 다음달 12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킹 파드 경기장에서 열리는 알 힐랄과 알 이티하드의 경기에 여성 관객들의 입장이 처음으로 허용된다.

사우디 정부는 올 10월 여성들의 축구 경기 관람을 허가했다. 사우디는 이 뿐만 아니라 올해 여성들의 자동차 운전과 영화관 개관을 허용하는 등 사회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해 왔다.

사우디 최초의 여성 스포츠업체 제다 유니타이트의 리나 알 메이나 회장은 "역사적인 경기"라며 "사우디 가족들이 처음으로 함께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알 메이나 회장은 "가족들은 드디어 따로가 아닌 함께 스포츠 활동이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어머니들도 아이들의 경기를 응원할 수 있다. 가족의 가치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의 여성 네티즌들은 사상 첫 축구경기 관람을 고대하고 있다. 축구팬이라고 밝힌 여성들은 "드디어 축구 경기를 경험할 수 있다", "내가 제일 먼저 경기장에 들어가는 여성이 되겠다" 등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사우디의 전통적 남녀관이 훼손될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는 축구가 남자들의 거친 스포츠라는 인식이 여전히 많다.

알 메이나 회장은 서로 간 예절과 품위를 지킨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며 "정부도 경기 입장부터 관리까지 모든 게 순조롭도록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축구 경기장에 여성들의 입장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 킹 파드 경기장과 제다에 위치한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담맘의 모하메드 빈 파드 경기장 등 세 곳만 여성들이 경기를 관람했다.

## 中 30대 티베트족, 쓰촨성 사찰서 분신자살

중국 30대 티베트족 남성이 티베트의 자유를 추구하고 분신했다고 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쓰촨성 아바 티베트족 자치주에서 지난 23일 쿤베이(昆貝 Kumbey)라는 30세 안팎의 남자가 중국의 티베트 점령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현지 공안 당국은 분신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고 시신을 가져갔다고 한다. 이로써 2009년 이래 중국 내에서 티베트의 자유를 요구하며 분신을 감행한 티베트족은 152명으로 늘어났다.

쿤베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영상은 SNS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티베트인에 전해졌으며 티베트인 공동체 곳곳에서는 그에 대한 추모행사를 벌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2009년 이후 중국 각지에서는 티베트족의 분신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대부분 '달라이 라마의 귀환, 티베트 자유', '티베트 독립', '소수민족 평등 대우' 등을 호소했다. 앞서 11월26일에도 쓰촨성 간쯔(甘孜) 티베트 자치주에서 68세 티베트 불교 승려가 '티베트에 자유를 달라'고 외치며 분신해 목숨을 잃었다.

뉴시스



스케이팅이 즐거운 아버지와 아들. 오후에도 영하의 날씨가 계속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팅장에 아버지와 아들이 스케이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이대목동, 상급종합병원 보류... '종합병원'으로 등급하향

이대목동 병원의 '제 3기(2018~2020)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가 일단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신청한 51개 기관 중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면서, 이대목동의 경우 지정 보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을 말하며, 전문성을 인정해 진료비 등 의료서비스 비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평가위원회'가 신청기관에 대해 지난 5개월여 간에 걸쳐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상대평가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대목동의 경우 신청이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혀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으로 이대목동병원은 내년 1월부터 종합병원으로 등급이 하향된다.

복지부는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상급종합병원의 평가항목·배점 기준을 재설계해 진료기능뿐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 ▲진료권역의 타당성 ▲기간간 진료역량 변화력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전문성을 인정해 입원료, 진찰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할 때 종합병원(25%), 병원(20%), 의원(1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산율(30%)을 적용한다.

3기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2기(2015~2017년) 때 지정됐던 43개 기관 중 41개 기관이 재지정되고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 신규 지정됐다.

뉴시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포경차**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eongChang 2018  
PyeongChang 2018